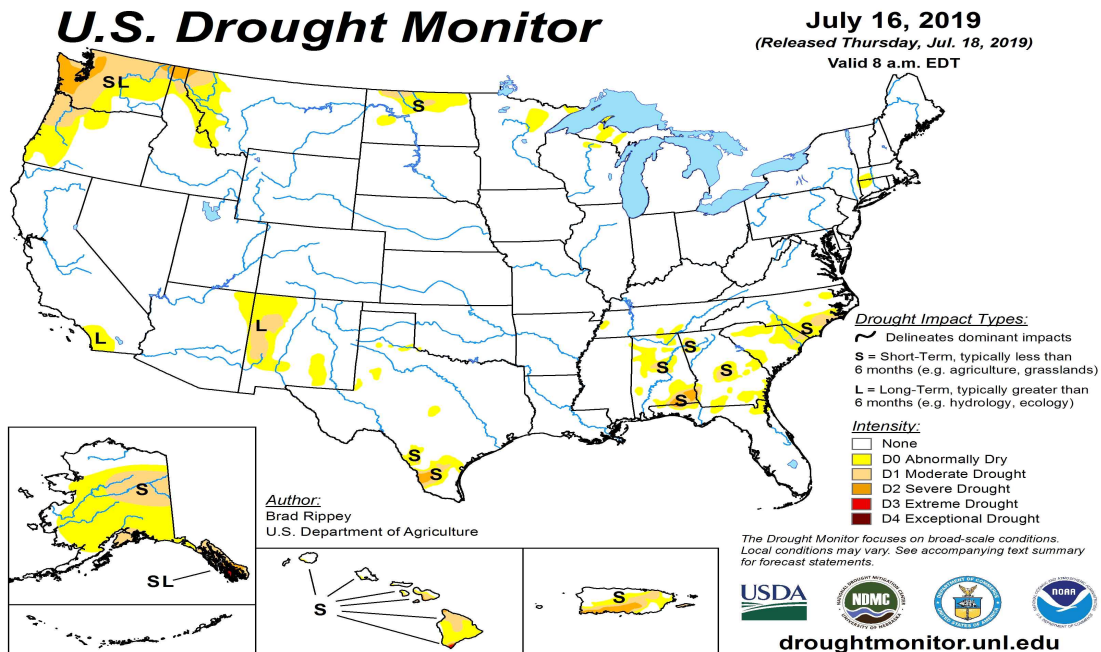


7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9)

□ 미국 기후 현황(7/14~7/20)

허리케인 배리의 잔여 세력이 북쪽으로 오하이오 계곡으로 흘러가면서 널리 비를 뿌렸는데, 대체로 여름작물에 이로웠지만 몇 곳에 급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장 심했던 비들 가운데 일부는 강우량이 미시시피 델타 주들의 일부에서 4~8 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다. 한편 몇 개의 한랭전선이 북부를 지나면서 평원 북부에서부터 북동부까지 소나기와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을 발생시켰다. 비가 가장 많은 내린 곳들 가운데서,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에서부터 미시간에 이르기까지 총강우량 2~4 인치 또는 그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국지적으로 강풍, 많은 우박, 고립된 토네이도가 동반되었다. 미국의 많은 곳들이 7월 중순에 있었던 짧은 기간의 폭염과 높은 수준의 습도를 겪으면서 가축과 여름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늦은 파종으로 뿌리가 잘 내리지 못했던 중서부에서 옥수수와 콩은 열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했는데, 이곳은 봄비가 심하게 내려서 파종이 아주 늦어진데다가 최근에 땅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평원, 중서부, 동부, 남서부의 많은 구역들의 주간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고, 정상보다 시원한 곳은 최북단 로키 산맥과 주변부뿐이었다. 로키산맥 동부는 - 애팔래치아 산맥 일부와 미국 북부의 일련의 주들을 제외하면 - 주중~주말의 온도는 90° F 이상으로 올라갔다. 고원 중부와 남부 전역은 100° F까지 올랐다. 사막 남서부는 온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110° F 또는 그 이상이었다. 그 밖의 지역으로 서부의 많은 구역들과 평원의 남부 절반은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하여 야외 작업과 작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한랭전선이 로키산맥 북부와 태평양 북서부에 어느 정도 가벼운 비를 뿌려주었다. 한편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 그리고 사막 남서부에는 계절풍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소나기가 점점이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15~7/21)

델타 일부와 옥수수 벨트에 비가 가장 심하게 내렸고 일부 지역은 4인치가 넘었다. 이 기간 동안 오대호, 대평원, 뉴잉글랜드, 사우스웨스트는 정상보다 더 더워서 많은 곳이 정상보다 평균 4° F 이상 높았다. 반면, 캘리포니아 일부, 델타,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북부의 온도는 정상보다 2°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7/14~7/20)

■ 유럽: 남동부 작물재배 지역은 기상 조건이 좋거나 아주 좋았던 반면, 북유럽과 서유럽은 다양한 수준의 건조와 가뭄이 있었다. 영국 남동부와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까지 이 기간의 평균 온도는 정상 근처였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폭염(정상보다 최대 3° C 이상)이 계속되어 중부와 남부는 벌써 30도 중반을 웃도는 고온이 생식 및 종실비대 중인 여름작물에게 더욱더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었다. 반면에, 북부 스페인(카스틸라우레오)은 옥수수와 해바라기가 생식 중인데, 최근에 비가 내린데다가 어느 정도 시원한 날씨(정상보다 1~2° C 높은) 덕분에 스페인의 북부 재배 지역의 수확량 전망은 훨씬 더 좋다. 한편, 프랑스에는 심한 단기 건조(30일 강수량이 정상의 20~35%, 국지적으로는 그 이하)가 발생해서 생식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제한하였다. 다만, 남서부의 핵심 옥수수/해바라기 지역은 조건이 다소 나은 편이다. 비슷하게 지난 30일간 강수량이 정상보다 낮았던(정상 대비 50% 이하) 독일, 폴란드, 저지대국가들은 생식 중인 봄곡류와 여름작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반대로 비록 강수량의 변동 폭은 컸지만(2~90 mm) 북이탈리아에서부터 발칸반도까지 널리 내린 소나기는 생식 중인 옥수수, 콩, 해바라기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어, 특히 남동유럽 전역의 수확량 전망을 밝혀주었다. 다뉴브 강 계곡에 있는 여름작물들은 지난 30일간 시기적절하게 내린 비(정상의 100~200 퍼센트)로 혜택을 보았다. 위성으로 파악된 식생의 건강 데이터는 작물의 활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지역 전체적으로 비가 때에 맞춰 내렸고 시원한 온도가 계속되었다. 두 주 연속 계속된, 정상보다 낮은 온도(정상보다 최대 2° C 이하)는 온도에 민감한 생식단계를 지나고 있는 옥수수, 콩, 해바라기에게는 이상적이었다. 더욱이 또 다시 시작된 중간~심한 소나기(5~70 mm)는 보다 시원한 날씨를 동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동중부 일부는 강수량이 5 mm 이하로 보고되었다. 지난 두 주간 비가 내리는 시원한 날씨는 여름작물에는 완벽한 날씨였다. 콩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완전 개화 중이었고;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수확 출수 중이었고, 남서러시아에서는 생식~종실비대 중이었으며, 해바라기는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서러시아에서는 주말에 개화기 중간단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주말에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름작물에 대한 수확량 전망은 초여름 폭염과 건조 피해 당시에 비해서 계속 나아지고 있었다.

■ 동아시아: 중국은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생식 중인 여름작물에 좋은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북동부는 흑룡강성과 내몽골 인근 지역에 25 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옥수수, 콩, 벼에게 유익을 주었다. 길림성과 요동성에는 이보다는 적은 비가 내렸다(10~25 mm, 지역적으로는 그 이상). 대부분의 북동부 전체가 전반적인 계절적 수분이 좋거나 우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외는 요동성이었는데, 30일 총강우량이 정상 대비 65% 이하였다. 남중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기가 계속 내려서(25~75 mm) 수분 조건은 후작 벼에게는 계속 좋았다. 하지만, 양쯔 계곡(허베이, 안후이, 장쑤 성)의 핵심 단작 벼 지역은 계속해서 강우가 일정치 않아 30일 총 강수량이 정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북중국평원은 때 아니게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여름작물의 관수 수요를 올리고 있고, 천수답 작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 밖의 지역으로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남일본, 남한, 북한 동부에 가장 많은 양(25 ~ 100 mm, 국지적으로는 200 mm 이상)이 내리고 있었다.

■ 호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는 가뭄이 고착화되어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남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남호주는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려서(1 ~ 10 mm, 국지적으로는 그 이상) 영양생장 중인 밀, 보리, 캐놀라에게 필요한 지역 수분 공급을 유지시켜주었다. 밀 벨트 내의 그 밖의 지역은 주말에 서호주에 확장한 하늘이 물러나고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5 ~ 25 mm) 겨울곡류와 유지작물에게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밝게 유지시켜주고 있다. 서부는 평균 온도가 정상 근처였고, 남동부는 정상보다 약간 높았다(정상보다 최대 1° C 높음).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북동부에서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1 ~ 2° C 낮았다.

■ 아르헨티나: 거의 모든 농업 지역이 날씨가 건조하고 때 아니게 따뜻해서 막바지 계절 밭작업을 돕고 있다. 대부분의 장소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포르모사와 코리엔테스의 변경 농업지대에만 적당한 양의 비(10 mm 이상)가 내렸다. 주간 평균 온도는 전 지역이 정상보다 2 ~ 4° C 높았다. 낮 최고 온도는,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섭씨 10도 중반 이상이었고, 먼 북쪽 지역은 20도 중반 이상부터 30도 대 중반 아래 사이였다. 밤 최저 온도는 아르헨티나 남부 일부에서 여러 날 결빙 이하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목화는 7월 18일 현재 91% 수확되었고, 옥수수는 4 퍼센트 진척되어 76% 완결되었다. 한편 밀은 전국적으로 89% 파종되었는데, 작년 추세와 비교해서 3 퍼센트 정도 늦어진 것이었다.

■ 브라질: 남부 밀 지대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출현 및 생식 중인 밀에 전반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남마토그로소 도 술과 서파라나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총강수량은 10 mm 이상이었다. 온도는 지난 주의 때 아니게 낮은 수준에서 다시 상승했다. 단, 리오그란데 도 술과, 남파라나에서 전통적으로 추운 장소들에서는 밤 최저 온도가 잠시 한 자리 수로 떨어졌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옥수수는 7월 15일 현재 58% 수확되었고, 밀은 51%가 개화기에 도달했다. 리오그란데 도 술에서는 밀이 7월 18일 현재 98% 파종되었고, 3%가 개화 중이다. 그 밖의 지역은 따뜻하고 확장한 날씨가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에 있는 주요 생산 지역에서 옥수수와 목화의 성숙과 건조를 도운 한편, 북동부 해안을 따라 계절 소나기(국지적으로는 25 mm 이상)가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지역에 머물렀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7월 19일 현재 86%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20 퍼센트 앞서고 있었고, 목화는 14% 수확되었는데 평균보다 3 퍼센트 뒤쳐졌다.